



평화를 말해요

평화롭게 살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왜 항공 여승무원에게 바지를 못하게 했을까?

비행기를 타면 항상 웃으며 승객을 안내하는 이들이 있죠. 대개 승무원이라고 하면 여승무원을 먼저 생각하죠. 항공사 광고에서도 환하게 웃는 여승무원을 볼 수 있죠. “여성 승무원 유니폼은 치마만 착용하고 머리 모양은 꼭 정 머리틀 하며 안경 착용하지 못한다.” 이는 오랫동안 시행된 한 항공사의 승무원 복장 및 용모 지침이었죠. 왜 여승무원은 치마만 입어야 하고 안경도 쓰지 못하게 했을까요? 사실 이런 지침은 승무원에게 가장 중요한 항공 안전과는 관계가 없죠. 해당 항공사 승무원 노조에서는 복장 및 용모지침을 바꾸 달라고 회사 측에 요청했죠. 항공사에서는 복장을 치마로 제한한 이유는 한국의 고금스럽고 아름다운 이미지를 강조하기 위해서이고 기내 안전 업무 수행에는 문제가 없다며 승무원들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죠. 이미 이 문제를 여성에 대한 차별이자 인권 침해라며 국가인권 위원회에 문제를 제기 했죠. 여승무원이 바지를 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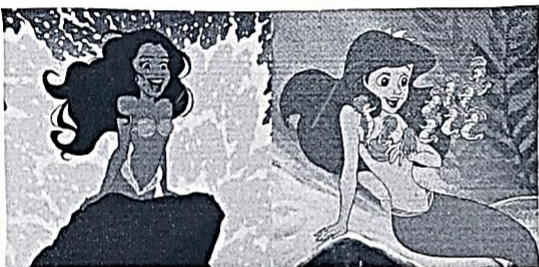
거나 머리 모양을 자유롭게 한다고 해서 갖춰지 하는 데 지장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치마만 입으면 비행기 안에서 비상상황이 발생했을 때 어려움이 있다는 점과 해당 항공사를 제외한 국내 항공사들이 항공사들이 여승무원에게 바지도 입을 수 있도록 한 점을 고려 할 때 지나치게 제한했다며 이와 같은 권고 결정을 내린 것 이예요. 여승무원도 남승무원과 마찬가지로 안전과 편의를 돕는 해요. 평에도 여승무원에 꼭 어울리는 강도 높은 건 잘 꾸민 편 편은 아니죠. -양지 영 평화부 윤태인 기자-

만화에서 나온 차별

우리는 의외로 일상생활에서 차별을 많이 접하게 됩니다.
특히 아이들이 시청하는 TV 프로그램만 하더라도 꽤 심대한 수준인데
어린이들의 꿈과 희망을 담당하는 디즈니에서도 이처럼
차별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램프를 켜면 소원 3개를 들어주는 지니가 나오는
알라딘도 차별이 나타났는데. 알라딘에 악당들은
거의 아랍비인인처럼 생긴데다, 주인공은 악당들과
다르게 마르인으로 나타내었습니다.
또한 알라딘 악당들의 생김새 상한 유색 인종 스테레오타입을 쓰는 상으로
캐스팅하였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더요. 최근 논란이 된 인어공주 배우
캐스팅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어공주의 원작 이미지는 보얀 피부와 빨간
머리카락을 연상케 합니다. 그러나 캐스팅 된
배우는 흑인이고 빨간 머리도 아닌 흑발입니다.
인종차별을 배려나 색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싶은
디즈니의 의도는 파악할까?만 아니라
그 부분이 훨씬 인종차별 같이 느껴집니다.
이대로 계속 차별적인 모습이 나타날지, 아니면
조금 더 발전된 모습이 나타날지 두고 봐야겠죠?

성인들이 보는 프로그램이라면 이것이 인종차별임을 알고 받아드리지 않겠지만
아이들과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전체 연령이라면 더욱 각별히 신경써야
되지 않을까요?

양지일보

전유린기자

평화부

이처럼 논란이 된 디즈니는
기독교를 믿습니다 기독교에서는
백인과 아무래도 좋은 쪽을
나타내고 흑색은 악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그런 디즈니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과 충돌해
인종차별이라는 생각을 심은것
아닐까요? 이런면에서
결국 문화적으로 문제가 생긴
것이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



3월 8일 여성에 날을 정했을까?

3월 8일은 세계 여성의 날이다. 세상의 절반은 남가운데

3월 8일 여성에 날을 정했을까? 그 이유는 여성이 오랫동안 가정을

맡았기 때문이다. 놀랍게도 여성은 1900년대까지만 해도 비록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졌다. 여성과 남성이 같은일을 하든

남성이 받는 임금의 절반 밖에 받지 못했다. 특히 1857년과 1908년

미국에서 여성 노동자들이 열악한 노동 환경과 저임금에 반발하여

근로시간 단축, 임금 향상, 투표권 등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였다. 특히 1908년

3월 8일, 미국에 있는 섬유 공장의 여성 노동자 1만 5천여명 시위에

1시간 근로와 작업환경 개선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였다. 이 사건을 기념하기 위해

해마다 3월 8일 세계 여성의 날로 정했다. 그러나 세계 여성의 날을 정했지만

실제로 자꾸롭게 참여하게 된것은 불과 100년도 채 되지 않았다. 영국은 1928년, 미국은

1920년 우리나라는 1948년부터 여성 투표권이 주어졌다. 하지만 공제는 투표권을 주어도

실질적으로 남녀가 평등하지 않을 것이다. 절반일은 남자와 하지만 여자가 거의 절반일을

맡아서 하고있다. 남녀평등시대라지만 여성은 여전히 가사, 사회에서 과열반기

일한다. 게다가 여성과 남성이 같은일을 하든 남성보다 적은 임금을 받는다. 직장도 마찬가지로

여성도 남성보다 승진 기회가 적다. 이런 상황들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여성도 같은 임금을

받고 승진 기회를 주어야 한다. 여성의 날은 여성만 위한 날이 아니라 여성 남성

평등하게 지내게 위한 날이다.

1. 이만이 개원민의 문제가 아니라가요?

이만이 사회 문제로 떠오르고 있어요. 예전에는 잘 먹지 못해서 문제가 되었는데, 이제 이만이 문제예요. 이만은 여러문제를 일으켜요. 무엇보다 이만때문에 생기는 각종 질환이 문제예요. 당뇨, 고혈압 등의 성인병은 이만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한국 성인 남녀 비만 유병률 추이



보건 복지부와 대한 이만 학회가 지난 1998년과 2007~2009년의 국민 건강 영양 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소득 상위 25% 가정의 이만 청소년 이만율은 6.6%에서 5.5%로 감소한 반면 하위 25%는 오히려 5%에서 9.7%로 두배 가까이 늘어났어요. 정부는 이처럼 이만

출처: <이만 유병률 추이>

문제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고 판단, 영양과 식생활, 신체 활동을 아우르는 1년 정부 차원의 대책을 마련했다. '국가 이만 관리 종합대책 (2018~2022)'을 발표한 것이다.

정부는 영양 운동·이만 치료·인식개선 등 4개 분야의 이만 예방·관리 대책을 통해 2022년 41.5%로 추정되는 우리 국민의 이만율을 2016년 수준인 34.8% 유지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정책 차원에서도 어린이·청소년을 위한 건강 관리 및 식단 편성을 펼쳐 갈 필요가 있어요

1. 이만 해결 방법

1. 근력운동의 시작

체지방을 태우기 위한 유산소운동 보다는, 중량운동 등 30분 이상 정기적으로 하여 근육을 자극하고 근육량을 늘리도록 하여야 합니다

2. 식습관

근육을 만드는데 필수적인 단백질 섭취를 해야 합니다

3. 무리한 다이어트 금지

무리한 다이어트는 근육을 태우는 큰 원인이기도 합니다

안민국 기자
양지일보 평화부

착한 초콜릿이 뭐예요?

중간 상인이 없이 농민과 직접 거래를 하자는 것이다 이제 농민들은 카카오 공장을 두배로 더 받게 되고, 공정무역 회사는 유기농으로 생산된 좋은 품질의 카카오 콩을 사게 됐다. 그것으로 만든 초콜릿은 값은 약간 비싸질 수도 있지만 맛도 좋고 현지 농민에게 더 나은 대가를 치라는 셈이 되다 그래서 '착한 초콜릿'이 되는 거다 사실, 중간 상인이나 가공업자가 챙기던 수익만큼 줄이면 농민에게 돈을 더 주더라도 초콜릿 값은 그렇게 올리지 않아도 된다는 주장도 있어. 이렇게 착한 생산과 착한 소비를 하도록 국제적으로 거래하는 것을 '공정 무역'이라 해. 우리가 공정 무역으로 살수 있는 것들을, 그 외에도 커피, 바나나와 설탕, 축구공이나 장난감, 옷이나 양말, 책상이나 침대 같은 것들이 제법 많이 있다.



그 값을 두배로 받는 농민만 좋을까? 아니 그 이상으로 좋은 점이 많단다. 첫째, 당연히 얘기지만, 가난한 나라의 농민이나 노동자에게 '공정 가격'을 지급하니 이들이 빈곤을 벗어나 더 담게 살수 있게 되지 그들도 웃을수 있으니 좋은 일이고, 또 지구 차원에서 불평등이 조금이라도 줄어 들겠지? 둘째는, 가난한 나라의 농민이나 노동자들이 협동조합 같은 데서 공으로 일해 공정 무역 제품을 팔게 되면, 마을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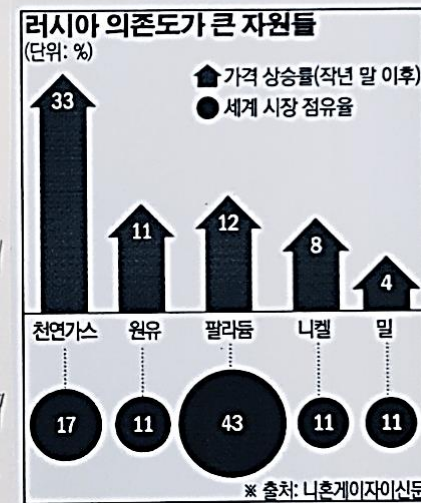
필요한 학교, 병원, 우물, 수도, 도로 등도 만들고 대학에 가는 청년을 위해 장학금도 줄수 있다. 마을 공동체가 발전하는 것이지 끝으로, 공정 무역이 활성화하고 착한 소비가 늘어나면, 온지가 건강 해 지는 효과도 있어. 우선은 농민이나 노동자들이 몸에 해로운 원료나 농약은 일절 적게 쓰거나 아예 안쓰니 중독 될 걱정이 없지. 또, 지하수나 흙, 공기 오염도 덜되고. 그리고 착한 소비자들도 건강한 음식을 먹게 되고 건강한 옷을 입으니 아토피 같은 병도 없어지고 몸에 생기가 돌지. 자, 이제 우리가 공정 무역이나 착한 소비에 참여 하면 '윈-윈 게임'을 할수 있다는걸 잘 알겠지? 이번 주말엔 부모님 손을 잡고 공정 무역 가게나 아름다운 가게? 데로 구경을 가보렴.

이가영 기자
양지일보 평화부

전쟁은 왜 무섭고 위험할까요?

평화를 원한다면 전쟁을 준비하라?

'평화를 원한다면 전쟁을 준비하라!' 인듯 보인 말은 말 같지만 단어의 뜻을 자세히 알아본다면 이 말은 맞는 말일까? 전쟁의 뜻은 '국가와 국가, 또는 교전 단체 사이에 '무력'을 사용하여 싸움' 이라는 뜻이고, 평화는 "전쟁" 등의 갈등이 없이 평온함."이라는 뜻을 보면 이 문장은 옳지 않다. 또 전쟁은 그 나라의 평화를 빼앗을 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의 평화도 깨뜨린다. 그 이유는 최근에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 이후 세계를 보면 알 수 있다. 유엔의 세계식량농업기구(FAO)는 전쟁으로 인해서 식량위기가 올 수도 있다고 이야기 하고 있다. 살아남더라도 높은 자원들의 가격들이 우리를 괴롭힐 것이다. 실제로 원유 가격이 1배럴당 50달러 수준에서 2021년도에 90달러를 넘어섰고 일부 전문가들은 130달러까지도 상승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한다고 한다. 정말 전쟁은 평화를 가져올 수 있을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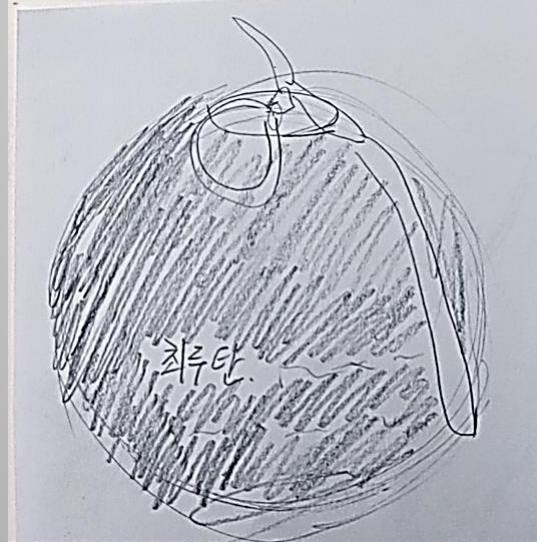


양지 일보 평화북
김시은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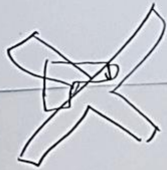
무기를 사고 팔지 않는 세상이 올까?

전쟁을 막으려면 무기를 사고 팔지 않아야 한다. 전세계적으로 거래되는 무기는 어마어마하다. 가능하게조차 어려운 액수로 거래되는 이 무기들은 지구 곳곳에서 수많은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다. 이미 유엔에서는 2013년 무기거래 조약을 채택했다. 이 조약에는 권총, 소총, 미사일 발사기부터 탱크, 전함, 공격용 헬리콥터 등의 무기 거래를 규제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거래 규제 대상은 테러조직, 무장 반군 단체, 범죄 단체 등이다. 또 민간인이나 학교, 병원 등을 공격하는데 사용될 수 있는 무기의 수출도 금지했다. 이 조약에 가입하는 각국 정부는 무기 내역을 유엔에 보고해야 하며, 무기 수출이 국제 평화와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반드시 고려하도록 했다. 하지만 조약 채택 과정에서 핵심 쟁점이었던 탄약의 수출금지 조항이 미국 등 일부 국가의 반대로 채택되지 못했다.

무기거래와 관련해서 우리나라도 생각할 점이 있다. 2013년 한국 애플스티와 평화 단체 등에서는 긴급 성명을 발표했다. 우리나라 기업에서 바레인으로 수출한 최루탄 때문이다. 바레인 보안군은 이 최루탄으로 반정부 시위대를 과도하게 진압해 수십 명을 사망하고 많은 사람이 다쳤다. 바레인 인권 단체는 바레인 위치는 '최루탄 수출 중단하라' 캠페인을 벌였다. 바레인 위치에서는 '한국 기업의 최루탄 공급을 즉각 중단하라'는 메시지로 최루탄 제조 기업으로 온라인 탄원, 보내기 기업 진화, 패시보 메시지 전달하기, 트위터로 알리기 등 활발한 활동을 벌였다. 2011년 미국산 최루탄과 고무 탄환이 발견되자 미국 정부의 최루탄을 비롯한 진압 작용제를 바레인의 수출하지 말라고 요구했다. 미국은 2011년 10월 예정되어 있던 바레인 무기수출을 중단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요구를 받아들여 바레인에 최루탄을 수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무기를 팔지 말라는 외침이 결실을 이뤄 낸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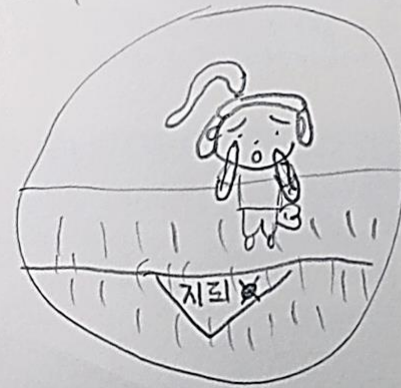


무기 팔지 마



한반도에 지뢰가... 충격적 여다...

한반도에 지뢰가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우리나라 약 248km에 지뢰 약 100만 개가 있다고 합니다. 피해자 수는 약 천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단위 면적당 지뢰 수가 가장 많은 불명예 국가라고 합니다. 지뢰라는 가장 끔찍한 무기를 산사태와 폭우로 인해 떨어지면 아주 큰 사고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미북한지뢰지대 97km도 있다고 합니다. 하루 빨리 지뢰를 제거하고 평화로운 나라로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서 빨리 지뢰가 제거됐음 좋겠습니다.

양지일보 평화보
고예준 기자

다시 전쟁이 일어나면 어떻게 될까요?

한반도에서 다시 전쟁이
일어나면 어떤 일이 벌어질
까요? 개전 하루만에 군인
20만, 수도권 시민 150만명이
죽거나 다칠거라. 일주일이면
군 병력은 최소 100만 명, 민간인
500만 명이 죽거나 다칠거라. 피해
액은 1000억 달러, 피해 복구 비용
은 3000억 달러. 이게 다 94년
기준이다. 현재는 2배 이상
늘어난다. 2012년 방북했던 한
나라 마에서 한반도에서 또
다시 전쟁이 벌어지면 피해 규모
가 얼마나 되느냐 나 인종 불교에
가 되느냐보. 사실이 그나마는 완
전히 끔찍한 이야기이기 아니겠
실제로 우리 나라는 1994년 6월 크라
마리 전쟁 전까지 그랬다.



1994년 한반도에는 한국 전쟁 이후
군사적 긴장감이 극에 달하고 있다.
북한 핵 문제 때문에 그렇다. 북한은
국제 원자력 기구(IAEA)를 탈퇴
하고, 당시 김영삼 대통령이 6월 6일
북한이 무조건 포항을 감행하면 기병과
파병의 각군 갖기 이라고 경고해 주
북위가 심상치 않게 되었다. 이 군인
국내 극심한 폭력 행위로, 이 군에서
누구든지 생명을 위협하는 시도는
즉시 목숨을 잃는다. 이 군에서
당시 미국에서 한 반군 전쟁을 코리안
노크 의전이 여권으로 바뀌어 있다.
전쟁을 하면 북한을 이길 수 없다. 후
군도 많았다. 우리도 전쟁이 일어나
면 최소한 한국군 45만 명과 민간인
100만 명이 사상, 경제적 피해 1조 달러
등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고 전쟁은
변곡기 되겠다.

양지 일보 평화부
조성빈 기자.

무기 대신 꽃을 나누면...

하마다 4월이면 스톡홀름 국제 평화 연구소(SIPRI)에 1/12
세 개의 군 사비를 할당한다. 할당금 분할 전 1-17개 나라
등 해 동안 얼마나 많은 돈을 군 사비로 쓰이고 있는가
2018년 전 세계 군 사비는 1조 2,200억 달러(약 1,220조 원)
우리 나라는 무기 수입 세계 7위, 수출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세계 군비 지출은 2018년



원 등기성

세계평화를 위해 전쟁을 시작한다고요?

2003년 3월 20일에 미국의 부시 대통령은 이라크 전쟁을 선언했어요. 당시 세계 여러나라가 전쟁에 반대하고 나섰어요. 한때 대량 살상무기를 개조하고 있는 이라크의 죄를 묻고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는 전쟁을 해야 한다는 주장도 많았어요. 이런 상황에서 미국은 곧바로 전쟁을 시작했어요. 미국은 이라크의 독재자 사담 후세인을 제거했지만 이라크인들은 2,400조 원에 달하는 이라크가 빈곤했던 것을 내렸어요. 미군 4,500명, 이라크인 18만명이 숨진데다 목격은 없었던 곳에선 기형아 출산같은 2차 피해가 일어나는 등 전쟁으로 인해 끔찍한 결과를 불러왔기 때문이에요. 미국의 승리로 전쟁이 끝나고 난뒤 사람들은 어처구니가 없었어요. 미국이 전쟁을 할 필요가 없다고 관리했던 살상무기가 이라크에서 발견돼버렸거든요. 미국은 평화는 위해 정당한 전쟁을 한다고 했지만 거짓만이었어요. 결국 이 전쟁은 수많은 사람들의 소중한 생명을 앗아가간 전쟁입니다. 정당한 전쟁도 현실에서 이뤄지지 않아요. 치열한 전투 고지점에서는 정의를 지킬수있기 때문이에요. 당장 우리나라 사느냐의 순간에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승리를 위해 행동하니까요. 더불어 전투 과정에서 생긴 서로에 대한 증오는 전쟁이 끝나고 나서 해결도 안되는 문제가 남아있어요. 이런 전쟁이라야 승리와 끔찍한 수단이 필요하죠. 전쟁보다 평화로운 삶이 소중함을 생각해 봐야 해요.

미국은 정당한 전쟁을 한다고 했지만 거짓만이었어요. 결국 이 전쟁은 수많은 사람들의 소중한 생명을 앗아가간 전쟁입니다.



전쟁이 이 어난다면 어떻게 될까?

뉴스와 게임에서보는 전쟁은 전쟁을 제대로 보지 못한다. 그래서, 전쟁의 실상을 잘 보지 못하는 작품이 많다. 바로 <서부전선 이상 없다>.

줄거리는 1차 세계 대전이 일어나자, 전쟁에 대한 호기심 때문에 많은 독일 사회 정복시기에서 허황된 미국영화들은 그사에 귀주에, 죽은 공보이며는 바친 국 등 20여명과 함께 서부전선으로 떠난다.

참호를 사이에 두고 서로 죽고 죽이는 전투가 반복되고, 하루하루 살아 가던 보이머는 전쟁 이외에 필요한 것 생각하게 되었다. 보이머는 나이를 먹고 말머선 등산 등을 하고 있었다. 1차 세계 대전에는 독가스, 화염 방사기 같은 무기들을 활용해서 싸웠지만, 전선을 변하지 않고, 1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죽었지만, 전선 상황 보고는 서부전선 이상 없다'였다. 그래서 제목을 <서부전선 이상 없다>라고 정했다. 이 소설을 영화로 만들었지만 전 세계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켜서 명작으로 꼽힌다. 비전 메세지도 없고 명화도 큰 인기를 끌었지만 전쟁을 꿈이 아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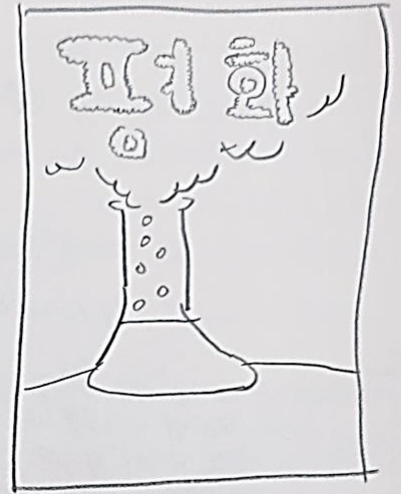
1차 세계 대전의 참상과 전쟁의 참상

과학자들은
어떤 반성을
했나요?

과학자들은 무슨 선언을 했나요?

과학자들은 인류의 발전에 많은 혜택을 주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많이 쓰는 스마트폰'이나 무인자동차가 있다 그런데 과학 기술을 잘못쓰면 하비가 만든 연소가소처럼 사람에게 치명적일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홀로코스트할때 하비가 만든 독가스(치클론B)를 사용했다 그런데 유대인이라는 이유로 홀대를 받았다 그래서 자발적으로 독일 떠났다 하비와 같이 과학기술을 잘못쓰면 사람들에게 치명적이다 또 핵무기도 치명적이다 핵무기를 발사하면 일본의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처럼 도시가 조토화된다

그리고 후쿠시마 핵 발전소 사고는 지금 까지 진행중이며 후쿠시마는 죽음의 땅 이 되고 방사능 누출이 심각한 수준이다 핵도 문제인 만큼 핵폐기물도 문제다 핵폐기물은 사용후 핵연료인데 지난 수십년동안 관리 문제로 골머리를 앓았다 위험도가 높은 독성물질인 핵폐기물로 100년이 지나야 독성이 사라지는 방사능 물질이다 그래서 핵을 없애야 한다는 선언도 나오기도 한다



그래서 노벨상을 받은 과학자들은 독일 마이너우 섬에 모여 이렇게 선언했다

“우리 과학자들은 서로 다른 국적에 서로 다른 정치적 견해를 갖고 있지만 노벨상을 받았다 는 공통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낸 인생은 과학에 바쳤고 과학이 사람을 더 행복하게 해 줄 수 있는 줄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과학이 인류를 파괴할 수단이 되고 있는데에 공통은 스럽습니다 과학이 군사적 목적에 사용되면서 땅은 방사능으로 오염되고 사람들은 절멸 위기에 맞고 있습니다 핵무기에 따른 두려움이 전쟁을 억제 할 수 있다고 믿는다면 그것은 환상입니다

-마이너우 선언중에서
<경향신문> 2009.7.4

양지일보 표기화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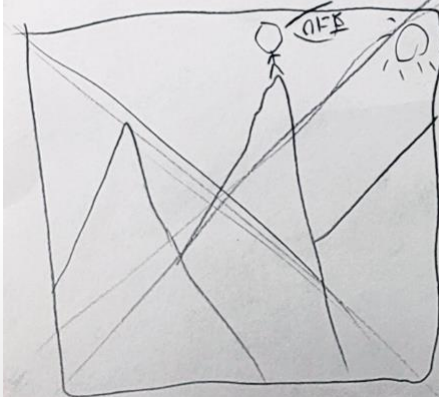
이부은 기자



어떻게 해야
일상에서
동물과 함께하는
평화가
가능할까요?

산에서 왜 소리지르면 안될까

생활속에서 평화를 멀리 갈수록 많은 작은 실천 방법이 있다. 바로 산에 가면 그곳에 살고 있는 동물에게 주의를 기울이는 일이다. 산정상에 오르면 '야호' 하는 외치는 사람이 있다. 하지만 산에서는 동물일방에서는 그 소리가 엄청난 스트레스이다. 조동근 환경에 익숙한 동물은 사람의 등장으로도 바사삭 긴장하기 때문이다. 그런 외침에 사람이 내거는 고향 소리는 동물에게 심각한 위협이 된다. 실제로 '야호' 소리에 놀라 절벽 아래로 떨어지거나 목숨을 잃는 동물도 있고 자칫하지 못하면 경유지 맴돌고 한참 뒤집힌 건전동물에 개리가 맞는 것 처럼, '야호' 소리는 동물의 생리 과다를 유발한다.



이같은 과잉의 외치는 우리가 흔히 쓰는 동물들 중에서도 새끼가 부족할지 모를 새끼를 찾는 의미로 등산(登山)이라는 말을 쓰거나 고대사 등산은 등산이란 말이 이미 생활을 위한 지리개념을 넘어서는 표현으로 일산(日山)이 일리 없이 산에 오르면 밭과 논은 물론 인산(人山)을 쓰거나 이 대동에서 등산(登山)이라 일산(日山)이란 표현이 작물해 불릴까 일산(日山)은 산의 끝에서 만경(萬景)의 외침 산을 내려오는 생각이 다들 그런다. 누군가 같은 서는 공안이 아니라 중에 안기는 공안으로 산이 우리에게 지니고 선리(仙理) 이전과는 다른 생각이 가능해진다. 최근 세계 여러 나라에서 돈이 저절로 의미있는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예전에는 금과 은으로 부족하고 멀리 산과 평지에 오르기 위한 평안이 이루어졌다. 이에 평상에 올라와 있는 동물 99%는 그렇지 않다. 동물 또한 마치 인간이 고대(古代) 동물에서 이긴 것 처럼 말이다. 하지만 저런 여우(여우)가 평지를 감성(感性)이나 동식물들이 버리고 간 소리를 듣는 등 자연을 벗어난 전쟁에 많은 이가 있다. 산에서 소리지르면 안된다는 사실을 깨닫고 가는 건 정말 산의 품에 안기는 일의 의미를 깨닫게 된다. 새끼 때문에 고대(古代) 광복의 디신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가는 법이다. 한글(韓契)과 같은 것을 생각해 보면 좋을 것이다.

양귀일부 평화부
박준호 기자

평화로운
미래를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어떻게 사과를 할까면 좋은데요

친구에게 미안하다고 한 적이 있나요? 잘못하면 누구나 실수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때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는 일
은 정말 멋진 거예요. 내가 사과하고 싶고 해도
속스럽고 또 미안해서 그 마음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사과하면
좋은 걸까요? 한 학생이 문제를 겪고 말없이 고개를 숙이고 있
어요. 무슨 사연일까요? 무릎을 꿇고 있는 사람은 독일서독총리
였던 빌리브란트예요.



빌리브란트 총리는 2차 세계 대전이
끝나고 폴란드를 갔어요. 당시 서독과 폴란드는
사이가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폴란드에서는
서독총리의 방문을 마땅치 않게 여기는
사람도 많았어요. 폴란드 국민들은
전쟁 때 그들이 죽은 사람들을 위해
그런 데 위령탑에 꽃을 바치기 위해
한동안 앞에서 지압했어요. 이후 총리는
국민의 질문이 어떻게 말했어요. 서독부

중립평화위예회

제 회한 거 아니었지 만 그날 아침 폴란드를 나설 때 부러워했던
진심에서부터 나는 표현을 해야 한다는 생각을 했었지 라고
할뿐 다 우리 조는 반씩 친구나 가족한테
미안하다고 하고 고맙다고 해주세요

지금까지 양지일보 평화부
김승원 기자였습니다

양지일보 평화부
김승원 기자